
전북지역 기업이 바라본 2025년도 경제전망

2025. 1.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 목 차 ||

I. 조사개요	1
1. 조사목적	1
2. 조사기간	1
3. 조사대상	1
4. 조사방법	1
5. 집계방법	1
6. 조사내용	1
III. 전북지역 기업이 바라본 2025년도 경제전망	2
1. 2025년도 예상 경제성장률	2
2. 전북지역 기업이 예상하는 경제 회복 시기	3
3. 2025년도 예상되는 내수판매 및 수출 실적 전망	4
4. 2025년도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6
가. 2025년도 예상되는 대내 리스크	6
나. 2025년도 예상되는 대외 리스크	7
5.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7

1. 조사목적

- 전북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경제 환경과 대내외 주요 리스크를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구체적으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북 경제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에도 활용하고자 함.

2. 조사기간

- 2024년 11월 19일 ~ 11월 29일

3. 조사대상

- 전북지역 4개상의(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 관할 제조업체 중 무작위 표본추출에 의거 117개 업체로부터 회수함.

4.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및 팩스 조사함.

5. 집계방법

- 회수된 조사표를 업종별(전북특별자치도 제조업체의 주요 업종인 8개 업종)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집계·처리하였음.

6.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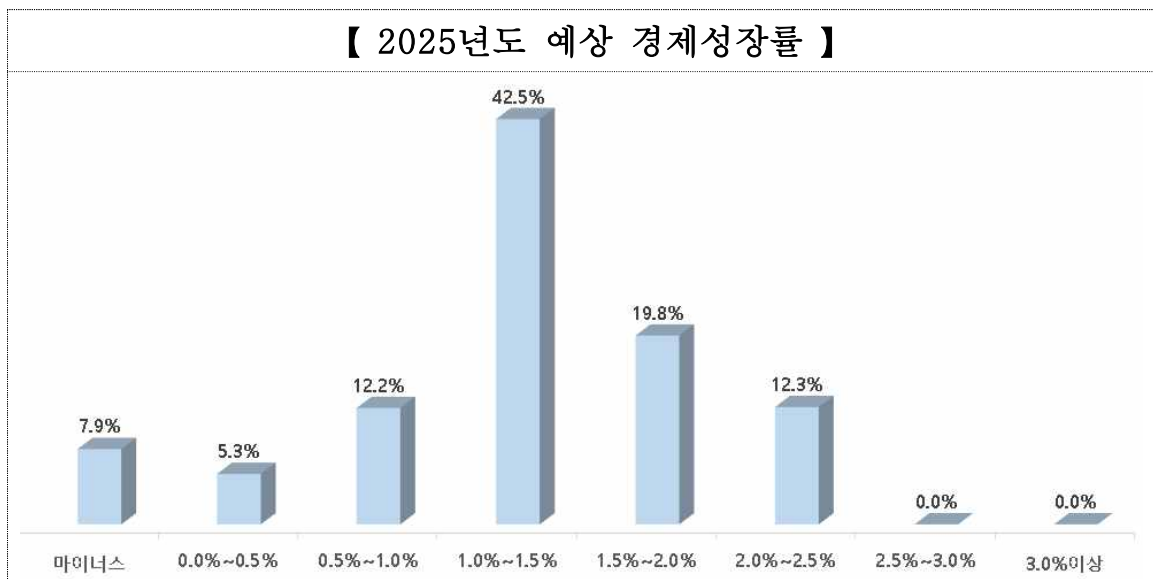
- 2025년도 예상 경제성장률
- 기업이 바라본 경제 회복 시기
- 2025년도 예상되는 내수판매 및 수출 실적 전망
- 2025년도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II

전북지역 기업이 바라본 2025년 한국 경제전망

1. 전북지역 기업이 바라본 2025년 한국 경제전망

- 전북지역 제조업체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도내 제조업체 117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한국 경제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2.5%가 올해 경제성장율을 1.0%~1.5%로 저성장을 예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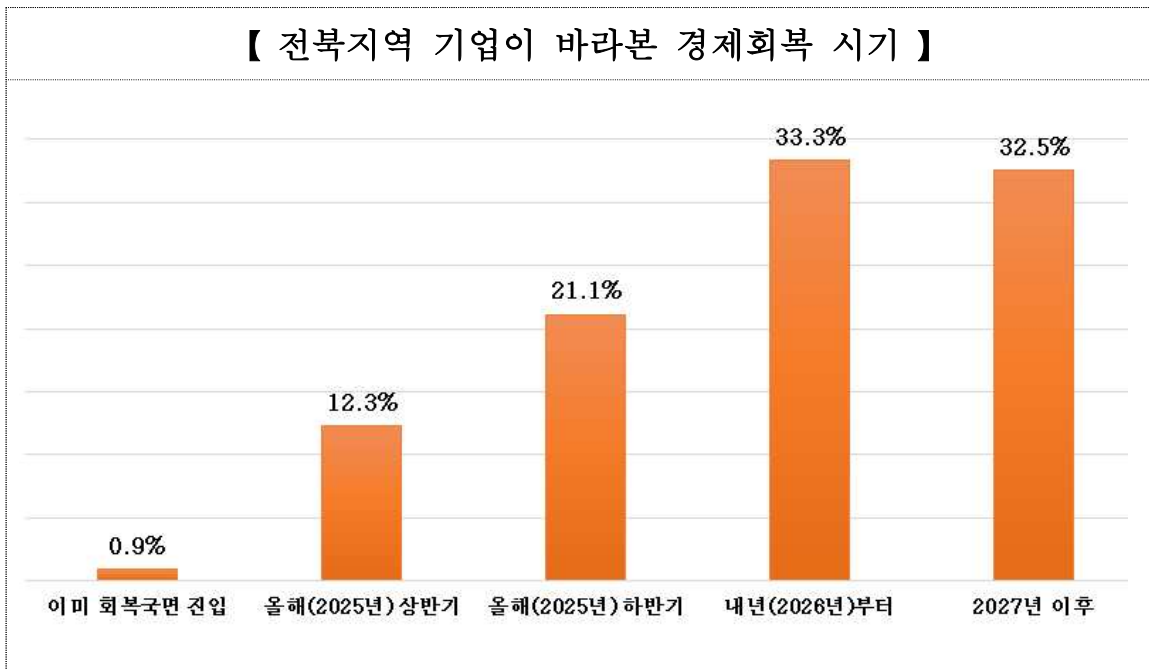


- 이와 같은 지역기업들의 경제성장율 예상 수치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시한 1.8%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현장에서 예상하는 지역기업의 경영상황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경제성장율 전망지수와 정부예측치와의 괴리는 중소기업 위주의 도내 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앵커기업 부재와 불확실성 가중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 내수 소비 위축,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당분간 어려운 경기 전망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책 당국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한 국내 산업 보호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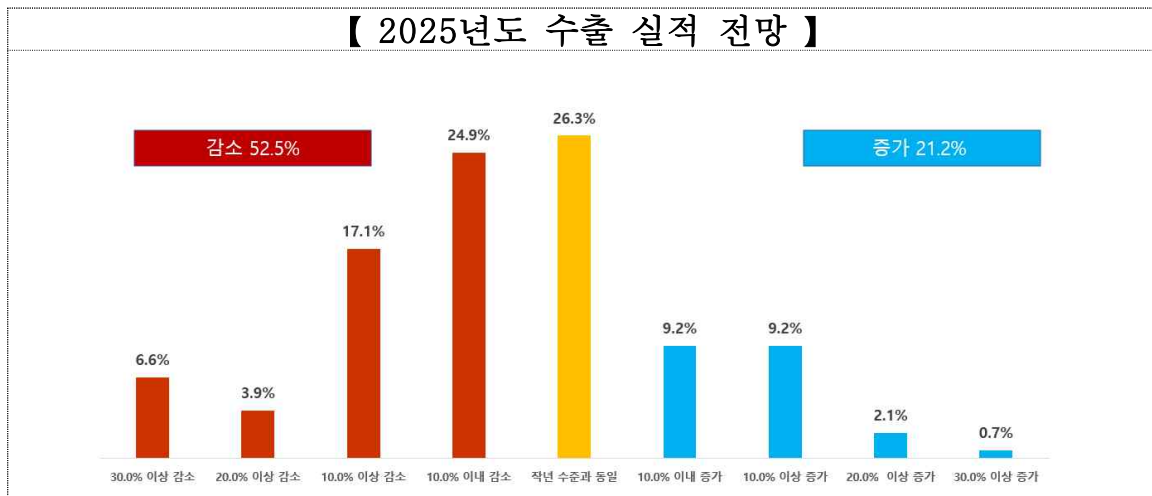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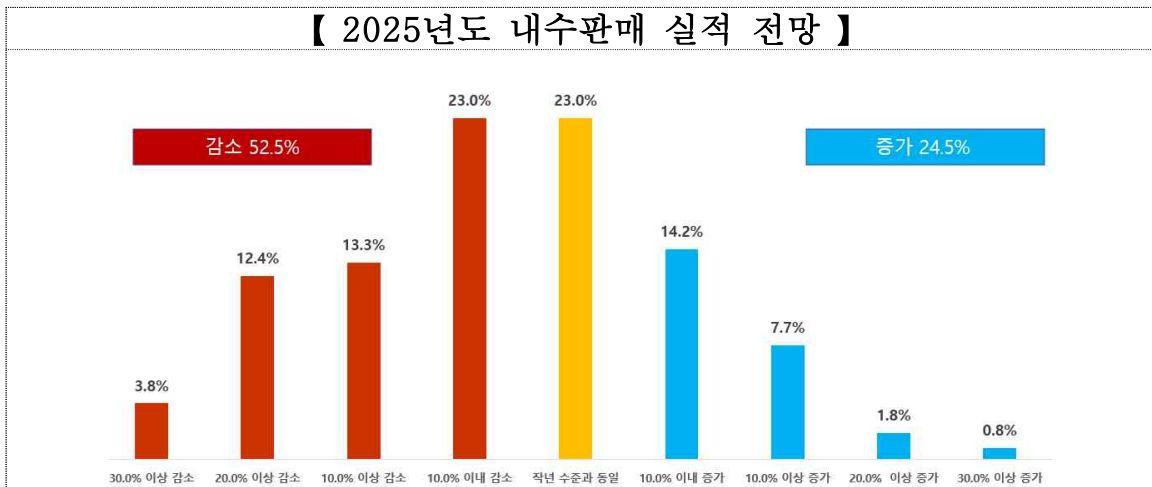
2. 전북지역 기업이 예상하는 경제 회복 시기

□ 전북 지역 기업들의 경제 회복 전망은 다소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경제 회복 시기를 묻는 질문에서 33.3%의 기업은 2026년부터, 32.5%의 기업은 2027년 이후에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함. 이에 따라 전체 응답 기업의 65.8%가 경제회복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함.



3. 2025년도 예상되는 내수판매 및 수출 실적 전망

- 전북 지역 기업의 52.5%는 올해 내수판매 및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대내적으로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더해져 경제 불확실성 가중으로 기업들은 내수 회복의 성장 동력을 얻지 못하고 극심한 경영 압박에 직면함.
-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저가 상품 수출 확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요인에 의해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환경 역시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출 다변화 및 공급망 강화 대책과 국내 산업 보호 조치 강화 등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



- 업종별 내수판매 및 수출 실적 전망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내수판매의 경우 장기화된 내수부진과 소비심리 위축 영향으로 전기전자 업종의 88.9%가 감소를 전망하였고, 오랜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비금속 업종 역시 75.0% 감소를 예상하여 내수시장에서 두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여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비금속 업종은 응답기업 모두가 전년에 비해 수출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봐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인해 비금속 업종의 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동종업계 경쟁 심화로 인한 지속적인 해외 수요 감소가 주원인으로 분석됨.

【 업종별 2025년도 내수판매 및 수출실적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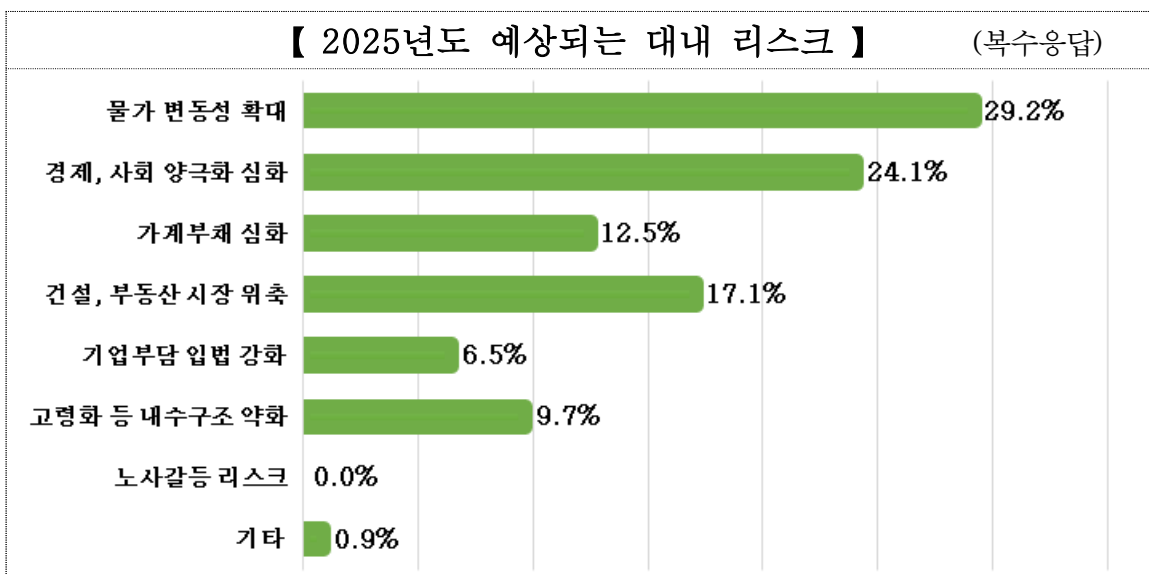
업종	감소	전년수준과 동일	증가
바이오농식품	39.3%	28.6%	32.1%
섬유의복	50.0%	-	50.0%
화학	37.5%	33.3%	29.2%
비금속	75.0%	25.0%	-
금속기계	47.1%	23.5%	29.4%
전기전자	88.9%	11.1%	-
자동차부품	64.3%	7.1%	28.6%
기타	66.7%	22.2%	11.1%

업종	감소	전년수준과 동일	증가
바이오농식품	45.0%	30.0%	25.0%
섬유의복	40.0%	-	60.0%
화학	55.0%	15.0%	30.0%
비금속	100.0%	-	-
금속기계	28.6%	35.7%	35.7%
전기전자	50.0%	25.0%	25.0%
자동차부품	45.5%	27.3%	27.3%
기타	-	50.0%	50.0%

4. 2025년도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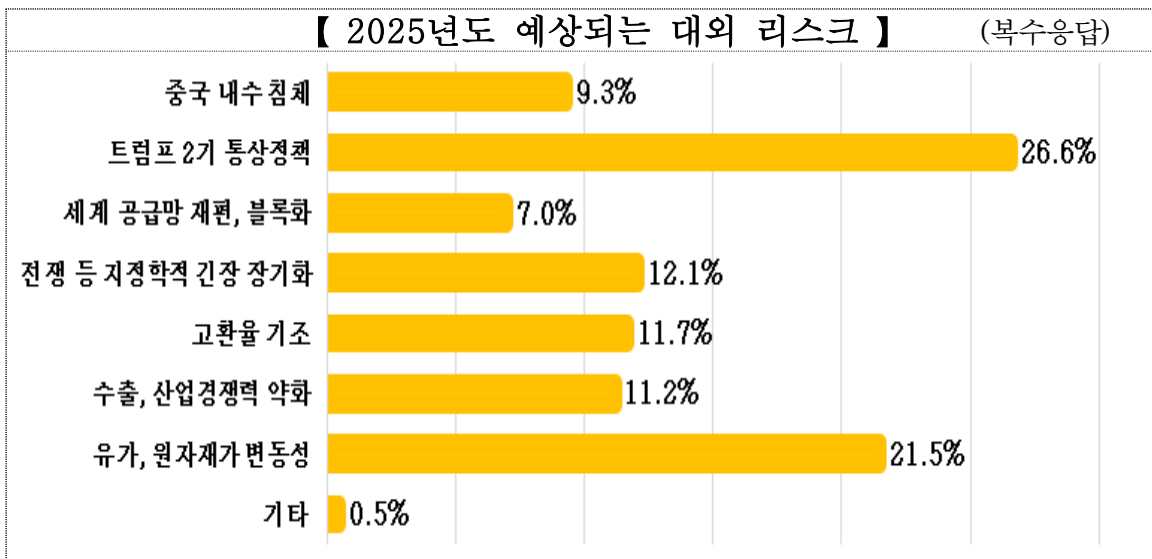
가. 2025년도 예상되는 대내 리스크

- 2025년 예상되는 대내리스크 요인을 묻는 질문에서 전북 지역 기업들은 올해도 기업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물가 변동성 확대(29.2%)’를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예상함. 이어서 ‘경제·사회 양극화 심화(24.1%)’, ‘건설·부동산 시장 위축(17.1%)’, ‘가계부채 심화(12.5%)’, ‘고령화 등 내수구조 약화(9.7%)’, ‘기업부담 입법 강화(6.5%)’ 등 복합적인 대내 리스크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응답함.
- 이와 같은 리스크는 국내 경제의 경기회복 지연, 사회적 양극화 심화, 건설·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내수시장 둔화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가계부채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소비·생산 기반 약화는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조사됨.



나. 2025년도 예상되는 대외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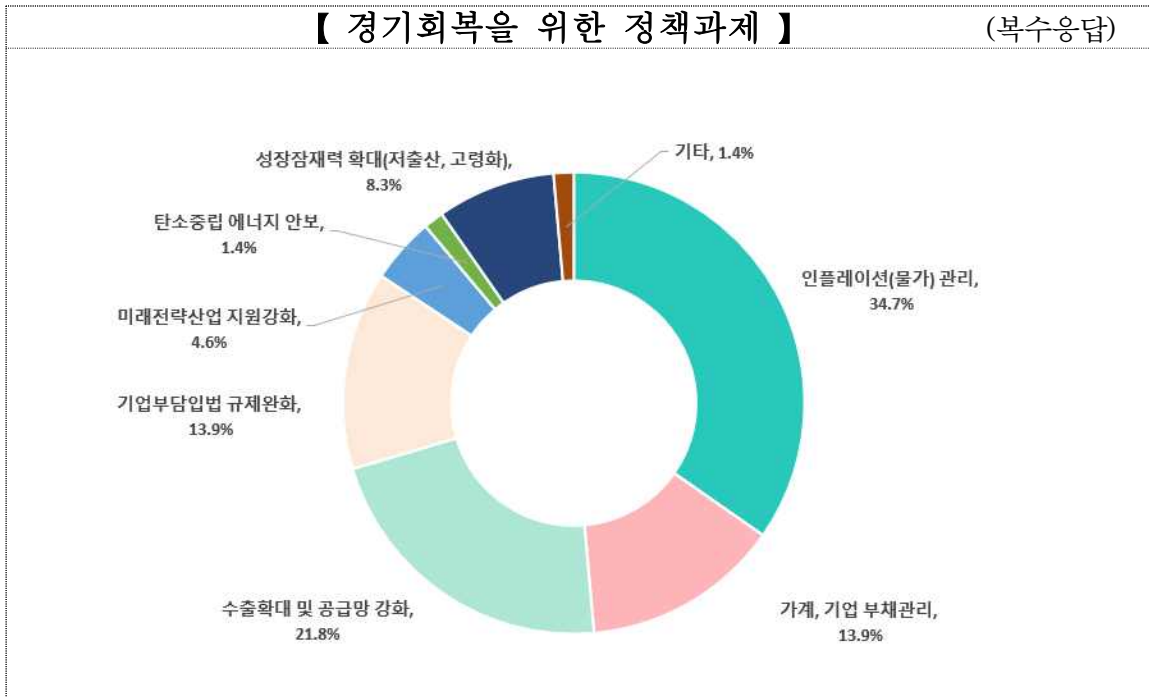
- 2025년도 대외 리스크로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26.6%)’이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함. 이어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21.5%)’,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 장기화(12.1%)’, ‘고환율 기조(11.7%)’, ‘수출, 산업경쟁력 약화(11.2%)’, ‘중국 내수 침체(9.3%)’, ‘세계 공급망 재편 및 블록화(7.0%)’ 등 순으로 응답함.
-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의 특성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통상정책의 변화,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의 불안 요인 등 대외 리스크가 산적하여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5.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 2025년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당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경제정책을 묻는 질문에서 기업들은 ‘인플레이션(물가) 관리(34.7%)’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선택함. 이는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인해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지난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를 돌파한 이후 2023년 3.6%, 2024년 2.3%로 점차 둔화되었지만 기업들은 지속적인 물가관리 시행으로 경제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 이어서 ‘수출 확대 및 공급망 강화(21.8%)’, ‘기업부담 입법·규제완화(13.9%)’, ‘가계·기업 부채 관리(13.9%)’,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성장잠재력 확대(8.3%)’, ‘미래 전략산업 지원강화(4.6%)’,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1.4%)’ 순으로 응답함.



-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 및 공급망 제한으로 인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물가상승을 주도하여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전북지역 기업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물가관리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출 확대 및 공급망 강화 등의 대책과 더불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입법과 규제 완화 등의 동반 조치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